

무엇이 한국인을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가?

박상준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예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박사수료

이영란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학술연구교수

박기철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박사수료

What Makes South Korean Perceive Happiness Lower Than Chinese and Japanese?

Sang-June Park^a, Rui Zhao^b, Yeong-Ran Lee^c, Ki-Chul Park^d

^a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b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c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1 August 2021, Revised 16 September 2021, Accepted 21 September 2021

Abstract

Purpose - Previous research points out that South Korean perceive their happiness less than Chinese and Japanese, although the three nations belong to the same Northeast Asia cultural sphe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reasons for the relatively low perception of happiness in South Korea and develop policy options to improve the relatively low perceived happiness in South Korea.

Design/methodology/approach - For the analyses,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the World Values Survey data (Wave 7).

Findings - First, South Korean perceived happiness less than Chinese due to 'satisfaction with the financial situation of household' and 'in-group trust'. More specifically, although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impact of 'satisfaction with the financial situation of household' on perceived happiness in South Korea and China, South Korean evaluated 'satisfaction with the financial situation of household' lower than Chinese. In addition, the impact of 'in-group trust' on happiness in South Korea was less than that in China, where the level of 'in-group trust' was also lower in South Korea than China. Second, South Korean perceived happiness less than Japanese due to 'in-group trust'. Although South Korean had a higher level of 'in-group trust' than Japanese, the impact of 'in-group trust' on perceived happiness was less in South Korea than Japan. The contribution of 'in-group trust' to perceived happiness, calculated with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in-group trust' multiplied by the mean of 'in-group trust', was evaluated lower in South Korea than Japa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identifies the mechanism leading to low perception of happines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World Values Survey data.

Keywords: Financial Satisfaction, Happiness, Trust, World Values Survey

JEL Classifications: A13, I31

^a First Author, E-mail: psj@jbnu.ac.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zhaorui1@naver.com

^c Co-Author, E-mail: twin1yr@hanmail.net

^d Co-Author, E-mail: kc777@jbnu.ac.kr

© 2021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Introduction

인간은 모두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최근 UN 세계행복지수의 발표에 의하면(World Happiness Report 2021), 핀란드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순으로 유럽 국가들이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40위, 한국은 50위, 중국은 52위로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Helliwell et al., 2021). 이와 관련하여 Ng (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행복수준이 서방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놓여있다고 하였다.

동아시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 국가의 행복수준을 비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국, 한국 순으로 한국인의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신승배, 이정환, 2015). 또한, Yamashita, Bardo and Liu (2016) 역시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복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행복수준이 가장 낮음을 보였다. 김상욱 (2020)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행복수준을 Wave 2(1990-1994)부터 Wave 7(2017-2021)까지 비교한 결과, 중국의 행복수준이 높게 증가하는 반면,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행복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행복수준을 비교한 후,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행복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여 한국의 행복수준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간의 행복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Easterlin, 1974; Lee et al., 2000; Ball and Chernova, 2008; Tokuda and Inoguchi, 2008; Tokuda, Fujii and Inoguchi, 2010; Ye, Ng and Lian, 2015; Wu and Zhu, 2016; Li and An, 2020). 특히, 사회적 요인에 포함되는 신뢰는 인간의 행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elliwell and Putnam, 2004; Tokuda, Fujii and Inoguchi, 2010). 구체적으로, Helliwell and Putnam (2004)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Tokuda, Fujii and Inoguchi (2010) 역시 신뢰가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선행연구들에서는 신뢰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Björnskov, 2008; Ram, 2010). 그러나 신뢰는 신뢰 대상과의 유대관계에 따라 그룹-내 신뢰(in-group trust)와 그룹-외 신뢰(out-group trust)로 구분될 수 있는데(Welzel and Delhey, 2015; Kramer, 2017),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신뢰 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대부분의 사람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로 측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 요인을 일반적 신뢰와 더불어 그룹-내 신뢰와 그룹-외 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신뢰 수준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VS Wave 5 (2005-2009): 중국(52.3)-일본(39.1)-한국(28.2), WVS Wave 6 (2010-2014): 중국(65.3)-일본(39.9)-한국(30.1)]. 이에 따라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뢰 요인이 낮은 한국의 경우 행복수준 역시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행복수준이 낮은 원인을 신뢰 유형(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별로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즉, 신뢰 유형을 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로 구분하고, 국가별로 각각의 신뢰 요인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행복은 소득,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사회계층 등 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Easterlin, 1974; Frey and Stutzer, 2002; Brockmann et al., 2009; Piff and Moskowitz, 2018; Kim, Lim and Falci, 2020). 이 중 소득은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Diener and Oishi, 2000; Layard, 2005; Ball and Chernova, 2008).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i Tella, MacCulloch and Oswald, 2003; Wei et al., 2015). 이와 달리, Tokuda, Fujii and Inoguchi (2010)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소득의 증가로 인해 행복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 소득의 증가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로 설명될 수 있다(Easterlin, 1974). 이외에도 경제적 요인 중 간접적으로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인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계층 요인이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ckmann et al., 2009; Piff and Moskowitz, 2018; Kim, Lim and Falci, 2020; 강우진, 2020).

한국은 외환위기 전·후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소득불균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졌다(전해정, 2014). 이렇듯 확대된 빈부격차는 경제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Graham and Pettinato, 2002). 또한, 한국은 사회계층에 민감하여 이를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Koo, 2007; Diener et al., 2010). 따라서 확대된 빈부격차에 의한 경제에 대한 높은 불만족과 상위의 사회계층에 속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한국인의 행복수준을 저해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정리하면, 동일한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중에서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을 차지하고 있지만, 행복수준은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행복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복수준이 중국과 일본보다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행복수준, 경제적 요인 및 신뢰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 국가별로 경제적 요인 및 신뢰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그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복수준, 경제적 요인 및 신뢰 요인은 국가(한국, 중국, 일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경제적 요인 및 신뢰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행복

행복은 인간과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최상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Aristotle, 1998). 행복의 추구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Thomas Jefferson은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한국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복의 추구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보고 있다.

행복은 장기적인 심리상태로써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Tatarkiewicz, 1976; Haybron, 2003). 다시 말하면, 행복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Veenhoven, 2008; Graham, 2011). 다차원적 측면에서 행복은 쾌락적 수준의 긍정적 정서(정서적 측면)와 욕구 실현의 만족 달성의 전반적 평가(인지적 측면)로 정의된다(Veenhoven, 1984). 또한, Keyes, Shmotkin and Ryff (2002)는 행복은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감정 간에 균형이 형성될 때 형성된다고 하였다.

인간의 행복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행복은 반부패를 비롯한 정치적 요인 (Wu and Zhu, 2016; Li and An, 2020), 개인주의-집단주의를 비롯한 문화적 요인 (Lee et al., 2000; Ye, Ng and Lian, 2015; Jasielska, Stolarski and Bilewicz, 2018), 소득을 비롯한 경제적 요인 (Easterlin, 1974; Ball and Chernova, 2008; Tavor et al., 2018; Lim et al., 2020), 신뢰를 비롯한 사회적 요인 (Tokuda and Inoguchi, 2008; Tokuda, Fujii and Inoguchi, 2010; Jasielska, 2020; Lu, Tong and Zhu, 2020)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국가 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들(예: OECD, 2014; Helliwell, Layard and Sachs, 2015)에 의하면, 한국, 중국, 일본은 소득수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의 행복수준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되었다(Oshio, Nozaki and Kobayashi, 2011; Yamashita Bardo and Liu, 2016). 또한, 신승배, 이정환 (2015)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행복감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의 행복감이 가장 낮음을 보였다. 김상욱 (2020) 역시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행복수준이 가장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의 3개 국가 중 한국의 행복수준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 1을 설정하였다.

H1 한국의 행복수준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을 것이다.

2. 경제적 요인과 행복의 관계

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소득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Layard, 2005; Ball and Chernova, 2008; Yamashita, Bardo and Liu, 2016; Lim et al., 2020). Diener and Diener (1995)는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물질적 생활수준의 개선이 행복수준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Helliwell (2006)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하였으며, Clark, Frijters and Shields (2008)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소득이 높은 효용성을 보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완만한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다 (Tokuda, Fujii and Inoguchi, 2010). 정리하면,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강도는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소득 이외에도 경제상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계층 요인 역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ckmann et al., 2009; Piff and Moskowitz, 2018; Kim, Lim and Falci, 2020; Ngamaba et al., 2020). Brockmann et al. (2009)은 가정경제에 대한 불만족이 행복을 저해할 수 있으며, 강우진 (2020)의 연구에서는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개인의 행복은 사회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와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이연경, 이승중, 2017). 실제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Diener and Oishi, 2000; Jung, 2020),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평가절하와 배척으로 인해(Piff and Moskowitz, 2018)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Lim and Falci, 2020).

종합하면,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계층 수준이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 2를 설정하였다.

H2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지각된 소득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ound: IMF)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202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은 34,870달러, 중국은 11,820달러이다(2021년 4월 추정치). 세계은행에서는 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의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정의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은 선진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Helliwell, 2006; Clark, Frijters and Shields, 2008). 따라서 한국은 중국에 비해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Diener, Inglehart and Tay (2013)의 연구에서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하였다. Oshio, Nozaki and Kobayashi (2011)의 연구에서는 일본이 가족 수준의 상대소득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였다(Koo, 2007; Diener et al., 2010). 이와 관련하여 이연경, 이승중(2017)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지위와 관련한 경쟁은 본질적으로 제로섬(Zero-Sum) 게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행복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또는 일본)에 비해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 만족도에 의한 행복

지각, 사회계층 수준)이 행복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가설 3을 설정하였다.

- H3**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또는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 H3-1** 지각된 소득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또는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 H3-2**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또는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 H3-3**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또는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3. 신뢰 요인과 행복의 관계

행복은 신뢰, 사회자본 및 혼인상태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Ram, 2010; Bessey, 2015; Hori and Kamo, 2018; Majeed and Samreen, 2021). 그 중에 신뢰는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Tokuda and Inoguchi, 2008; Glatz and Eder, 2020; Lu, Tong and Zhu, 2020). 신뢰는 대상에 따라 사람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Paxton, 1999). 하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대부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측정된 일반적 신뢰(또는 사회적 신뢰)를 토대로 신뢰와 행복의 관계로 확인하였다(Helliwell and Putnam, 2004; Ram, 2010; Tokuda, Fujii and Inoguchi, 2010; Majeed and Samreen, 2021). 구체적으로, Helliwell and Putnam (2004)은 1980년대-1990년대의 세계가치관조사(WVS) 자료를 토대로 신뢰도가 높을수록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제시하였으며, Yamaoka (2008)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뢰가 삶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Tokuda and Inoguchi (2008)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불신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일반적 신뢰는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정은진, 이재덕, 2018; 강혜진, 이민아, 2019), 사적 신뢰(이웃, 처음 만난 사람,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와 공적 신뢰(중앙정부, 국회, 법원,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믿음)가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임현철, 2019). 즉, 신뢰가 인간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일반적 신뢰는 신뢰 대상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Delhey, Newton and Welzel, 2011). 그러나 신뢰 대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사람'의 범위는 문화 또는 국가에 따라 친구, 아는 사람, 낯선 사람 등 그 이해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Torpe and Lolle, 2011). 이에 따라 Welzel and Delhey (2015) and Kramer (2017)는 신뢰 대상에 따라 그룹-내 신뢰와 그룹-외 신뢰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룹-내 신뢰는 가족이나 이웃 등과 같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이고, 그룹-외 신뢰는 처음 만나거나, 다른 종교를 믿으며, 다른 국적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이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신뢰를 대상에 따라 그룹-내 신뢰와 그룹-외 신뢰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Welch, Sikkink and Loveland (2007) and Freitag and Traunmüller (2009)는 신뢰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신뢰와 그룹-외 신뢰를 동일시하였으며, 강혜진, 이민아 (2019)는 아는 사람부터 낯선 사람까지를 통합하여 사람에 대한 신뢰와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로 구분하고,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이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음의 가설 4를 설정하였다.

- H4**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이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1** 일반적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2** 그룹-내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3** 그룹-외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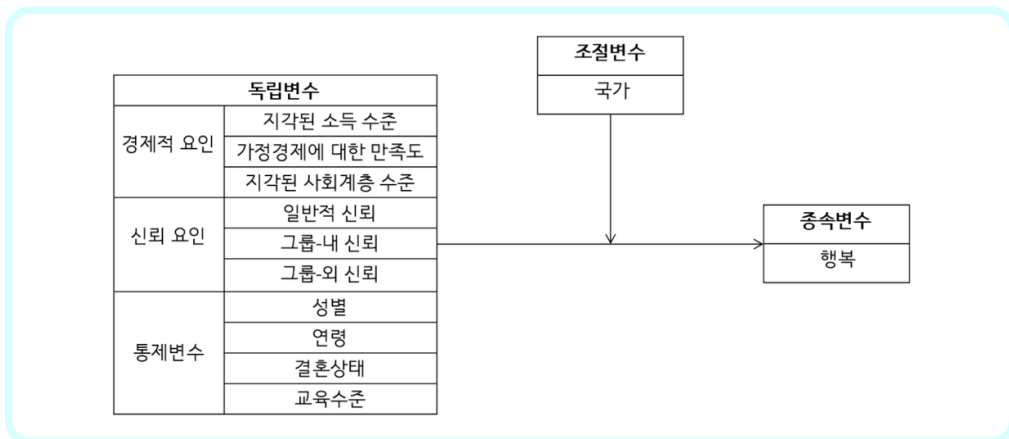
국가별로 일반적 신뢰 수준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uchan, Croson and Dawes, 2002; Holmberg and Rothstein, 2017; Sung and Son, 2020; 박상준, 2012). 이렇듯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적 신뢰 수준을 보이는 한국은 그룹-내 신뢰와 그룹-외 신뢰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뢰 요인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다음의 가설 5를 설정하였다.

- H5**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이 지각된 행복에 영향을 한국에 비해 중국(또는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 H5-1** 일반적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또는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 H5-2** 그룹-내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또는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 H5-3** 그룹-외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또는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4.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수준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행복수준이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과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Fig.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을 확인하고, 한국의 행복수준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행복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과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조사(WVS)의 2017년-2020년 데이터(Wave 7)를 사용하였다. 세계가치조사(WVS)는 사람들의 변화하는 가치가 사회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 자료로, 198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자료가 수집되어 공개되어 있다(Inglehart et al., 2020).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수집된 7차 자료(총 49개국 대상, 70,867명 참여)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응답자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조사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응답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 응답자는 1,245명, 중국 응답자는 2,864명, 일본 응답자 593명으로 총 4,702부의 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되었다(Table 1) 참조.

Table 1. 국가별 응답자 분포 현황

국가	빈도(명)	비율(%)
한국	1,245	26.5
중국	2,864	60.9
일본	593	12.6
합계	4,702	100.0

2. 변수측정

1) 행복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긍정적인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Veenhoven, 1999; Graham, 2011).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조사(WVS) 7차 자료에서 사용된 행복에 관한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1=매우 행복하다 vs. 4=전혀 행복하지 않다), 실증분석에서는 역척도가 사용되었다.

2) 경제적 요인

본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은 세계가치조사(WVS) 7차 자료에서 사용된 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이 사용되었다. 먼저, 지각된 소득 수준은 자신의 소득 수준이 어느 범위에 포함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세계가치조사(WVS)에서 지각된 소득 수준은 “선생님의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월급,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1=하위 계층 vs. 10= 상위 계층). 다음으로,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객관적인 경제적 지표가 아닌 재정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Ng and Diener, 2014). 세계가치조사(WVS)에서 사용된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측정문항은 “현재 선생님의 가정의 재정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의 단일항목으로 10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대단히 불만족한다 vs. 10=매우 만족한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은 사회계층 구조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금현섭, 백승주, 2011). 세계가치조사(WVS)에서 사용된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에 관한 측정문항은 “선생님의 가정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항목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1=상층 vs. 5=하층), 실증분석에서는 역척도가 사용되었다.

3) 신뢰 요인

신뢰는 심리적 관점에서 앞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우호적인 행동을 할 것이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나 신념, 믿음으로 정의된다(Kramer, 1999). 본 연구에서는 신뢰 대상에 따라 일반적 신뢰와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로 구분하였다.

첫째, 일반적 신뢰는 불특정한 대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Glaeser et al., 2000; Miller and Mitamura, 2003; Lim, Im and Lee, 2021). 이는 세계가치조사(WVS) 7차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의 문항으로 대부분 믿을 수 있는 경우 ‘1’로, 조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로 측정되었다(실증분석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경우를 ‘1’로, 신뢰하는 경우를 ‘2’로 설정함). 둘째, 그룹-내 신뢰는 친척, 지인 또는 이웃과 같이 어느 정도 친숙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정의할 수 있다(Welzel and Delhey, 2015). 이를 토대로 그룹-내 신뢰는 세계가치조사(WVS) 7차 자료의 가족, 나의 이웃,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측정항목을 사용하였으며(1=매우 신뢰한다 vs. 4=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실증분석에서는 역척도가 사용되었다. 셋째, 그룹-외 신뢰는 서로 알지 못하거나 국적이나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정의된다(Welzel and Delhey, 2015). 이를 토대로 그룹-외 신뢰는 세계가치조사(WVS) 7차 자료에서 처음 만난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측정항목을 사용하였으며(1=매우 신뢰한다 vs. 4=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실증분석에서는 역척도가 사용되었다. 이때, 그룹-내 신뢰와 그룹-외 신뢰의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도출한 결과, 그룹-내 신뢰는 .581, 그룹-외 신뢰는 .744로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세계가치자료조사(WVS) 7차 자료에서 사용된 인구통계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성의 경우 ‘1’로, 여성의 경우 ‘2’로 측정되었으며, 연령은 응답자가 직접 자신의 연령을 기입하는 형태로 측정되었다. 결혼상태는 결혼했다, 동거, 이혼, 별거, 사별, 미혼으로 구분하였고, 실증분석에서는 결혼과 동거를 married ‘1’로 설정하고, 이혼, 별거, 사별을 previously-married ‘2’로 설정하였으며, 미혼은 never-married ‘3’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수준은 Lower를 기준그룹으로 설정하고, Lower의 경우 ‘1’로, Middle의 경우 ‘2’로, Upper의 경우 ‘3’으로 측정되었다.

3. 응답자 특성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별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남성 607명, 여성 638명으로 총 1,2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균연령은 45.63세였다. 중국은 남성 1,293명, 여성 1,571명으로 총 2,8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균연령은 44.52세였다. 일본은 남성 269명, 여성 324명으로 총 5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균연령은 54.35세였다.

Table 2. 국가별 응답자 특성

		한국	중국	일본
평균연령		45.63세	44.52세	54.35세
성별	남성	607명(48.8%)	1,293명(45.1%)	269명(45.4%)
	여성	638명(51.2%)	1,571명(54.9%)	324명(54.6%)
결혼 상태	Married	899명(72.2%)	2,327명(81.3%)	452명(76.2%)
	Previously-married	35명(2.8%)	159명(5.6%)	79명(13.3%)
	Never-married	311명(25%)	378명(13.2%)	62명(10.5%)
교육 수준	Lower	140명(11.2%)	1,571명(54.9%)	32명 (5.4%)
	Middle	522명(41.9%)	661명(23.1%)	235명(39.6%)
	Upper	583명(46.8%)	632명(22.1%)	326명(55.0%)

IV. 실증분석 결과

1.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로 지각된 행복과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과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Table 3〉 참조), 먼저, 국가별 행복수준은 한국은 2.931, 중국은 3.150, 일본은 3.187로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F=71.174, p<.00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중국, 한국-일본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따라서 가설 1(한국의 행복수준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을 것이다)이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국가별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각된 소득 수준에 대한 인식은 중국 4.130, 일본 4.150, 한국 4.840 순으로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66.595, p<.001$), 한국-중국, 한국-일본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일본 6.000, 한국 6.080, 중국 6.510으로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26.539, p<.001$), 한국-중국, 중국-일본에 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에 대한 인식은 중국 2.290, 일본 2.670, 한국 2.970으로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324.025, p<.001$), 3개 국가 간(한국-중국, 한국-일본, 중국-일본)에 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마지막으로, 국가별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적 신뢰 수준은 일본 1.322, 한국 1.329, 중국 1.655 순으로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F=268.554, p<.001$), 한국-중국, 중국-일본에 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그룹-내 신뢰 수준은 일본 3.069, 중국 3.284, 한국 3.206 순으로 나타났으며($F=80.320, p<.001$), 3개 국가 간(한국-중국, 한국-일본, 중국-일본)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그룹-외 신뢰는 중국 1.957, 일본 1.984, 한국 2.018로 나타났으며($F=5.963, p<.01$), 한국-중국에 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1$).

Table 3. 국가별 지각된 행복, 경제적 요인, 신뢰 요인의 차이

항목	국가	평균 (SD)	F	사후검증 (Scheffe)		
				한-중	한-일	중-일
행복	한국	2.931 (.385)	71.174***	***	***	ns
	중국	3.150 (.631)				
	일본	3.187 (.632)				
지각된 소득 수준	한국	4.840 (1.378)	66.595***	***	***	ns
	중국	4.130 (1.852)				
	일본	4.150 (2.573)				
경제적 요인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한국	6.080 (1.465)	26.539***	***	ns	***
	중국	6.510 (2.277)				
	일본	6.000 (2.272)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	한국	2.970 (.724)	324.025***	***	***	***
	중국	2.290 (.804)				
	일본	2.670 (.900)				
일반적 신뢰	한국	1.329 (.470)	268.554***	***	ns	***
	중국	1.655 (.476)				
	일본	1.322 (.468)				
신뢰 요인 그룹-내 신뢰	한국	3.206 (.402)	80.320***	***	***	***
	중국	3.284 (.369)				
	일본	3.069 (.444)				
그룹-외 신뢰	한국	2.018 (.557)	5.963**	**	ns	ns
	중국	1.957 (.501)				
	일본	1.984 (.579)				

Note: *** $p<.001$, ** $p<.01$, * $p<.05$.

이어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행복에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과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 외-신뢰)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4〉 참조). 먼저,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지각된 소득 수준은 한국과 일본의 지각된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p > .05$), 중국의 지각된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9, p < .05$). 따라서 가설 2-1(지각된 소득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지지되지 않았다. 둘째,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한·중·일 3개국의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beta = .375, p < .001$; 중국 $\beta = .350, p < .001$; 일본 $\beta = .415, p < .001$). 따라서 가설 2-2(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셋째,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은 한국의 지각된 행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p > .05$), 중국과 일본의 지각된 행복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beta = .117, p < .001$; 일본 $\beta = .107, p < .05$). 따라서 가설 2-3(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 외-신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 신뢰는 한국의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beta = .087, p < .01$), 중국과 일본의 지각된 행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따라서 가설 4-1(일반적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그룹-내 신뢰는 3개국 모두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beta = .074, p < .01$; 중국 $\beta = .124, p < .001$; 일본 $\beta = .145, p < .001$). 따라서 가설 4-2(그룹-내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셋째, 그룹-외 신뢰는 3개국의 지각된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따라서 가설 4-3(그룹-외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지지되지 않았다.

Table 4. 한국, 중국, 일본: 경제적 요인과 신뢰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일본	
			b	β	b	β	b	β
절편			2.171***	--	1.549***	--	2.070***	--
독립 변수	경제적 요인	지각된 소득 수준	.007	.025	-.017*	-.049	-.011	-.046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098***	.375	.097***	.350	.115***	.415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	.024	.045	.091***	.117	.075*	.107
	신뢰 요인	일반적 신뢰	.071**	.087	-.011	-.008	.061	.045
		그룹-내 신뢰	.071**	.074	.212***	.124	.206**	.145
		그룹-외 신뢰	-.026	-.038	.022	.018	-.083	-.076
통제 변수	성별 ^a	Female	.016	.021	.077***	.060	.124**	.098
	연령		-.002	-.073	.002**	.057	-.006***	-.178
	결혼 ^b 상태	Previously-married	-.023	-.010	-.135**	-.049	-.097	-.052
		Never-married	-.096**	-.108	-.047	-.025	-.213**	-.103
	교육 ^c 수준	Middle	-.067	-.086	-.079**	-.053	.142	.110
		Upper	-.022	-.028	-.110***	-.072	.085	.067

Notes: 1. 종속변수: 행복.
 2. 통제변수는 "0"과 "1"의 더미변수로 코딩함: a성별(Male)=0, b결혼상태(Married)=0, c교육수준(Lower)=0.
 3. *** $p < .001$, ** $p < .01$, * $p < .05$.

추가로, 회귀모형에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차의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0.1보다 높고(한국= .227~.931; 중국=.571~.963; 일본=.181~.930), 분산팽창요인은 10이하(한국= 1.075~4.405; 중국= 1.038~1.752; 일본= 1.075~5.536)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이 다중공선성 문제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추가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과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신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두 국가 간(한국-중국, 한국-일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회귀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변수의 회귀계수를 다르게 설정한 회귀분석모형과 동일하게 설정한 회귀분석모형의 설명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χ^2 차이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경제적 요인과 신뢰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즉 개별변수의 회귀계수의 차이가 두 국가(한국-중국) 간에 차이가 있는지 χ^2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Table 5〉 참조), 지각된 소득 수준,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 일반적 신뢰와 그룹-내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 국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지각된 소득 수준의 회귀계수 차이: $\chi^2=4.20$, $p<.05$;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의 회귀계수 차이: $\chi^2=7.49$, $p<.01$; 그룹-내 신뢰 수준의 회귀계수 차이: $\chi^2=9.78$, $p<.01$). 따라서 가설 3-1(지각된 소득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3(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5-2(그룹-내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이 더 높을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일반적 신뢰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chi^2=6.20$, $p<.05$), 중국보다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나서 가설 5-1(일반적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이 더 높을 것이다)은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그룹-외 신뢰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중국 국가 간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의 회귀계수 차이: $\chi^2=.02$, $p>.05$; 그룹-외 신뢰의 회귀계수 차이: $\chi^2=2.50$, $p>.05$). 따라서 가설 3-2(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이 더 높을 것이다)와 가설 5-3(그룹-외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중국이 더 높을 것이다)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과 신뢰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차이, 즉 개별변수의 회귀계수의 차이가 두 국가(한국-일본) 간에 차이가 있는지 χ^2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Table 5〉 참조), 그룹-내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일본 국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chi^2=4.20$, $p<.05$), 가설 5-2(그룹-내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 일반적 신뢰와 그룹-외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과 일본 국가 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각된 소득 수준의 회귀계수 차이 $\chi^2=1.91$, $p>.05$;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의 회귀계수 차이 $\chi^2=1.28$, $p>.05$;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의 회귀계수 차이 $\chi^2=2.06$, $p>.05$; 일반적 신뢰의 회귀계수 차이 $\chi^2=.04$, $p>.05$; 그룹-외 신뢰의 회귀계수 차이 $\chi^2=1.20$, $p>.05$). 따라서 가설 3-1(지각된 소득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2(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3(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5-1(일반적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5-3(그룹-외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 비해 일본이 더 높을 것이다)이 지지되지 않았다.

Table 5. 두 국가 간(한국-중국, 한국-일본)에 회귀계수 차이 분석

		중국		한국		일본	
		b	$\chi^2_{\text{한-중}}$	b	$\chi^2_{\text{한-일}}$	b	
독립 변수	경제적 요인	지각된 소득 수준	-.017*	4.20*	.007	1.91	-.011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097***	.02	.098***	1.28	.115***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	.091***	7.49**	.024	2.06	.075*
	신뢰 요인	일반적 신뢰	-.011	6.20*	.071**	.04	.061
		그룹-내 신뢰	.212***	9.78**	.071**	4.20*	.206**
		그룹-외 신뢰	.022	2.50	-.026	1.20	-.083
통계 변수	성별 ^a	Female	.077***	4.17*	.016	4.86*	.124**
	연령		.002**	8.53**	-.002	5.39*	-.006***
	결혼 ^b	Previously-married	-.135**	1.50	-.023	.49	-.097
	상태	Never-married	-.047	.92	-.096**	1.62	-.213**
	교육 ^c	Middle	-.079**	.07	-.067	3.13	.142
	수준	Upper	-.110***	2.78	-.022	.82	.085

Notes: 1. 종속변수: 행복.
 2. 통계변수는 "0"과 "1"의 더미변수로 코딩함: a성별(Male)=0, b결혼상태(Married)=0, c교육수준(Lower)=0.
 3. *** $p < .001$, ** $p < .01$, * $p < .05$.

4. 결과요약

본 연구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행복감을 보이는 원인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실증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두 국가(한국-중국, 한국-일본) 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경우,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과 지각된 행복의 관계를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 모두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지각된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두 국가(한국-중국) 간에 영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인은 6.080, 중국인은 6.510으로 한국인이 더 낮게 나타나, 경제적 요인 중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의 행복수준이 중국보다 낮게 나타나는 원인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과 지각된 행복의 관계를 비교하면, 한국은 일반적 신뢰와 그룹-내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중국은 그룹-내 신뢰에 한하여 지각된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 신뢰 요인이 한국인의 행복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행복수준이 중국보다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룹-내 신뢰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낮았으며(한국 = .071 < 중국 = .212), 그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의 그룹-내 신뢰 수준은 3.206으로 중국인의 그룹-내 신뢰 수준 3.284 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낮은 그룹-내 신뢰 수준이 한국인의 행복수준이 중국인의 행복수준에 비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과 지각된 행복의 관계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 모두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지각된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국가(한국-일본) 간에 영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수준이 일본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과 지각된 행복의 관계를 비교하면, 한국은 일반적 신뢰와 그룹-내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일본은 그룹-내 신뢰에 한하여 지각된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적 신뢰 요인은 한국인의 행복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행복수준이 일본보다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룹-내 신뢰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낮았으며(한국 = .071 < 일본 = .206), 그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국인의 그룹-내 신뢰 수준은 3.206으로 일본인의 그룹-내

신뢰 수준 3.069로 한국인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룹-내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그룹-내 신뢰 평균치의 곱으로 표현되는 '그룹-내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기여도는 한국이 .228, 일본이 .632로 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낮은 그룹-내 신뢰 수준이 한국인의 행복도가 일본보다 낮게 나타나는 원인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동아시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 중 상대적으로 한국의 행복수준이 낮은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경제적 요인(지각된 소득 수준,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과 신뢰 요인(일반적 신뢰, 그룹-내 신뢰, 그룹-외 신뢰)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의 행복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행복수준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두 국가(한국-중국, 한국-일본)별로 경제적 요인과 신뢰 요인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 경제적 요인의 경우, 지각된 소득 수준과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에 비해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뢰 요인의 경우에는 한국은 중국에 비해 일반적 신뢰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그룹-외 신뢰 수준은 중국에 비해 한국이 높게 나타났고, 그룹-내 신뢰 수준은 중국에 비해 한국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국가별로 경제적 요인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지각된 소득 수준이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중국은 지각된 소득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다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Diener and Oishi, 2000). 오히려 높은 소득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초과 근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높이며(Golden and Wiens-Tuers, 2006),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Golden and Wiens-Tuers, 2008) 소득이 증가하여도 행복수준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모두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수준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Ngamaba et al., 2020; 강우진, 2020). 그리고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은 중국과 일본에 한하여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 사회적 지위에 민감한 사회이기 때문에(Kim, 1998), 치열한 경쟁을 통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국가별로 신뢰 요인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중·일 3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일반적 신뢰가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모두 그룹-내 신뢰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그룹-외 신뢰는 지각된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ukuyama (1995)는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가족과 같은 그룹-내 구성원으로 제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은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므로 그룹-외 구성원보다 가족, 이웃 등과 같은 그룹-내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것이므로, 그룹-외 구성원보다 그룹-내 구성원에 대해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가별로 경제적 요인과 신뢰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경우, 지각된 소득 수준, 지각된 사회계층 수준, 그룹-내 신뢰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에 비해 중국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그룹-내 신뢰 수준이 지각된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한하여 한국에 비해 일본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행복감을 보이는 이유를 정리하면, 첫째, 중국에 비해 한국의 행복수준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가정경제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그룹-내 낮은 신뢰 수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에 비해 한국의 행복수준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낮은 그룹-내 신뢰 수준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학문적,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세계가치조사 자료(Wave 7)를 활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경제적 및 신뢰 요인과 행복의 관계와 그 차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행복에 관한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특히,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 소득과 사회계층 이외에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행복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신뢰 요인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일반적 신뢰뿐만 아니라 그룹-내 신뢰(또는 그룹-외 신뢰)와 행복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신뢰와 행복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최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행복수준을 비교한 김상욱(2020)의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인의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경제적 요인, 신뢰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행복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경제적 요인과 신뢰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의 행복수준이 중국과 일본보다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행복에 관련된 국가 간 비교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수준이 중국보다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가정경제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행복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의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하여 형성된 경제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균형 및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경제에 대한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의 소득 불균형 및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행복수준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것은 그룹-내 신뢰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한국은 신뢰가 낮은 사회로 평가되어 있고, 심각한 사회갈등이 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1인당 GDP의 27%를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으로 쓴다”라고 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고자 공공 매체를 통해 상호신뢰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거나 완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 신뢰수준, 행복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변수들에 기반하여 한국, 중국, 일본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들 변수에 기반하여 소비자에게 좀 더 가까이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행복수준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계가치조사(WVS)에서 제시한 2차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향후에는 국가 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인들을 포함한 1차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중국, 일본이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fstede, 2001).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화적 요인(개인주의-집단주의) 등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행복감을 보이는 이유로 경제적 요인과 신뢰 요인으로 확인하였는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사회자본, 혼인상태 등)을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조사(WVS)의 2017년-2020년 사이에 수집된 7차 자료에 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 변화에 따른 시계열적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강우진 (2020),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OECD 6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제도신뢰의 영향력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3(1), 139-165.
- 강혜진, 이민아 (2019), “사회신뢰와 대인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삶의 질 매개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8(1), 329-360.
- 김현섭, 백승주 (2011), “사회보험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동”,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 61-86.
- 김상욱 (2020), “한중일의 행복수준 비교”, *중국학연구회*, 94, 115-144.
- 박상준 (2012),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경쟁과 부에 대한 인식과 사회신뢰”, *한국경영과학회지*, 37(1), 61-71.
- 삼성경제연구소 (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CEO Information, 제710호.
- 신승배, 이정환 (2015), “동아시아의 가족가치관과 행복감 비교: 한국, 중국, 일본 비교”, *지역과 세계*, 39(3), 279-310.
- 이연경, 이승중 (2017),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행위논총*, 55(1), 1-39.
- 임현철 (2019), “사회적자본과 안전인식 그리고 개인웰빙에 관한 연구: 사회적자본과 안전인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19(1), 1-22.
- 전해정 (2014),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형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5(2), 95-111.
- 정은진, 이재덕 (2018), “개인의 행복 여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요인 탐색”, *역량개발학술연구*, 13(1), 27-45.
- Aristotle. (1998), *Nicomachean Ethics*(David R., Tran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558).
- Ball, R. and K. Chernova (2008), “Absolute Income,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8(3), 497-529. <https://doi.org/10.1007/s11205-007-9217-0>
- Bessey, D. (2015), “Love Actually? Dissecting the Marriage-Happiness Relationship”, *Asian Economic Journal*, 29(1), 21-39. <https://doi.org/10.1111/asej.12045>
- Bjørnsvkov, C. (2008), “Social Capital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1), 43-62. <https://doi.org/10.1007/s11482-008-9046-6>
- Brockmann, H., J. Delhey, C. Welzel and H. Yuan (2009), “The China Puzzle: Falling Happiness in a Rising Econom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4), 387-405. <https://doi.org/10.1007/s10902-008-9095-4>
- Buchan, N. R., R. T. Croson and R. M. Dawes (2002), “Swift Neighbors and Persistent Strangers: A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Trust and Reciprocity in Social Ex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1), 168-206. <https://doi.org/10.1086/344546>
- Clark, A., P. Frijters and M. Shields (2008), “A Survey of the Income Happiness Gradi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1), 95-144. <https://doi.org/10.1257/jel.46.1.95>
- Delhey, J., K. Newton and C. Welzel (2011), “How General Is Trust in “Most People”? Solving the Radius of Trus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5), 786-807. <https://doi.org/10.1177/0003122411420817>
- Di Tella, R., R. J. MacCulloch and A. J. Oswald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809-827. <https://doi.org/10.1162/003465303772815745>
- Diener, E. and C. Diener (1995), “The Wealth of Nations Revisited: Income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6(3), 275-286. <https://doi.org/10.1007/BF01078817>
- Diener, E. and S. Oishi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In E. Diener and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ambridge, MA: MIT Press, 185-218.
- Diener, E., E. Suh, C. Kim-Prieto, R. Biswas-Diener and L. Tay (2010, December 3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Seoul, South Korea.

- Diener, E., R. Inglehart and L. Tay (2013), "Theory and Validity of Life Satisfaction Scal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2(3), 497-527. <https://doi.org/10.1007/s11205-012-0076-y>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125. <https://doi.org/10.1016/B978-0-12-205050-3.50008-7>
- Freitag, M. and R. Traunmüller (2009), "Spheres of Trus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oundations of Particularised and Generalised Trus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8(6), 782-803. <https://doi.org/10.1111/j.1475-6765.2009.00849.x>
- Frey, B. S. and A. Stutzer (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402-435. <https://doi.org/10.1257/002205102320161320>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NY: Free Press.
- Glaeser, E. L., D. I. Laibson, J. A. Scheinkman and C. L. Soutter (2000), "Measuring Trus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3), 811-846. <https://doi.org/10.1162/003355300554926>
- Glatz, C. and A. Eder (2020), "Patterns of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Europe: New Insights from Repeated Cross-Sectional Analyses Based on the European Social Survey 2002-2016",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8(2), 417-439. <https://doi.org/10.1007/s11205-019-02212-x>
- Golden, L. and B. Wiens-Tuers (2006), "To Your Happiness? Extra Hours of Labor Supply and Worker Well-Being",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5(2), 382-397. <https://doi.org/10.1016/j.socec.2005.11.039>
- Golden, L. and B. Wiens-Tuers (2008), "Overtime Work and Wellbeing at Home", *Review of Social Economy*, 66(1), 25-49. <https://doi.org/10.1080/00346760701668495>
- Graham, C. (2011), *The Pursuit of Happiness: An Economy of Well-Being*, New Delhi: Prabhat Prakashan.
- Graham, C. and S. Pettinato (2002), "Frustrated Achievers: Winners, Loser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New Market Economie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8(4), 100-140. <https://doi.org/10.1080/00220380412331322431>
- Haybron, D. M. (2003), "What Do We Want From a Theory of Happiness?", *Metaphilosophy*, 34(3), 305-329. <https://doi.org/10.1111/1467-9973.00275>
- Helliwell, J. F. (2006), "Well-Be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What's New?", *The Economic Journal*, 116(510), C34-C45. <https://doi.org/10.1111/j.1468-0297.2006.01074.x>
- Helliwell, J. F. and R. D. Putnam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https://doi.org/10.1098/rstb.2004.1522>
- Helliwell, J. F., R. Layard and J. Sachs (Eds.) (2015), *World Happiness Report 2015*,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elliwell, J. F., R. Layard, J. Sachs and J. -E. De Neve (Eds.) (2021), *World Happiness Report 2021*,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Holmberg, S. and B. Rothstein (2017), "Trusting Other People", *Journal of Public Affairs*, 17(e1645), 1-8. <https://doi.org/10.1002/pa.1645>
- Hori, M. and Y. Kamo (2018), "Gender Differences in Happiness: the Effects of Marriage, Social Roles, and Social Support in East Asi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3(4), 839-857. <https://doi.org/10.1007/s11482-017-9559-y>
- Inglehart, R., C. Haerpfer, A. Moreno, C. Welzel, K. Kizilova and J. Diez-Medrano et al. (2020), *World Values Survey: Round Seven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Available from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7.jsp>
- International Monetary Found (IMF) (2021), *World Economic Outlook*. Available from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datasets/WEO>

- Jasielska, D. (2020), "The Moderating Role of Kindness on the Relation Between Trust and Happiness", *Current Psychology*, 39(6), 2065-2073. <https://doi.org/10.1007/s12144-018-9886-7>
- Jasielska, D., M. Stolarski and M. Bilewicz (2018), "Biased, Therefore Unhappy: Disentangling the Collectivism-Happiness Relationship Globall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9(8), 1227-1246. <https://doi.org/10.1177/0022022118784204>
- Jung, M. H. (2020),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Class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7(7), 543-553. <https://doi.org/10.13106/jafeb.2020.vol7.no7.543>
- Keyes, C. L. M., D. Shmotkin and C. D. Ryff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1007-1022. <https://doi.org/10.1037//0022-3514.82.6.1007>
- Kim, B. K. (1998), "Socioeconomic Status and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27(2), 1-15. <http://www.jstor.org/stable/deveandsoci.27.2.1>
- Kim, J. W., C. Lim and C. Falci (2020), "Subjective Social Class, Perceived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and Happiness: A Case of Mediation and Moderation across Gender", *International Sociology*, 35(3), 312-335. <https://doi.org/10.1177/0268580920906375>
- Koo, H. (2007), "The Changing Faces of Inequality in South Korea in the Age of Globalization", *Korean Studies*(31), 1-18. <https://doi.org/10.1353/ks.2008.0018>
- Kramer, R. M. (1999), "Trust and Distrust in Organizations: Emerging Perspectives, Enduring Ques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569-598.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0.1.569>
- Kramer, R. M. (2017), "Ingroup-Outgroup Trust: Barriers, Benefits, and Bridges", In E. M. Uslan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and Political Trus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24.
- Layard, P.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New York, NY: Penguin Press.
- Lee, D. Y., S. H. Park, M. R. Uhlemann and P. Patsult (2000), "What Makes You Happy?: A Comparison of Self-Reported Criteria of Happiness between Two Cul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3), 351-362. <https://doi.org/10.1023/A:1004647517069>
- Li, Q. and L. An (2020), "Corruption Takes Away happiness: Evidence from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2), 485-504. <https://doi.org/10.1007/s10902-019-00092-z>
- Lim, C., D. K. Im and S. Lee (2021), "Revisiting the "Trust Radius" Question: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Trust Radius in South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3(1), 149-171. <https://doi.org/10.1007/s11205-020-02496-4>
- Lim, H. E., D. Shaw, P. S. Liao and H. B. Duan (2020), "The Effects of Income on Happiness in East and South Asia: Societal Values Matter?",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2), 391-415. <https://doi.org/10.1007/s10902-019-00088-9>
- Lu, H., P. Tong and R. Zhu (2020), "Longitudinal Evidence on Social Trust and Happiness in China: Causal Effects and Mechanism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5), 1841-1858. <https://doi.org/10.1007/s10902-019-00159-x>
- Majeed, M. T. and I. Samreen (2021), "Social Capital as A Source of Happiness: Evidence from A Cross-Country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48(1), 159-179. <https://doi.org/10.1108/IJSE-10-2019-0602>
- Miller, A. S. and T. Mitamura (2003), "Are Surveys on Trust Trustworth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6(1), 62-70. <https://doi.org/10.2307/3090141>
- Ng, W. and E. Diener (2014), "What Matters to the Rich and the Poor? Subjective Well-Being, Financial Satisfaction, and Postmaterialist Needs Across the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2), 326-338. <https://doi.org/10.1037/a0036856>
- Ng, Y. K. (2002), "East-Asian Happiness Gap: Speculating on Causes and Implications", *Pacific Economic Review*, 7(1), 51-63. <https://doi.org/10.1111/1468-0106.00149>
- Ngamaba, K. H., C. Armitage, M. Panagioti, and A. Hodkinson (2020), "How Closely Related Are Financial

-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85, 101522. <https://doi.org/10.1016/j.socsec.2020.101522>
- Oshio, T., K. Nozaki and M. Kobayashi (2011),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in Asia: Evidence from Nationwide Surveys in China, Japan, and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4(3), 351-367. <https://doi.org/10.1007/s11205-010-9754-9>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https://doi.org/10.1086/210268>
- Piff, P. K. and J. P. Moskowitz (2018), “Wealth, Poverty, and Happiness: Social Class is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Positive Emotions”, *Emotion*, 18(6), 902-905. <https://doi.org/10.1037/emo0000387>
- Ram, R. (2010), “Social Capital and Happiness: Additional Cross-Country Evide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4), 409-418. <https://doi.org/10.1007/s10902-009-9148-3>
- Sung, P. and J. Son (2020), “In-Group Trust and Self-Rated Health in East Asia Using Quadri-National Survey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61(1), 27-58. <https://doi.org/10.1177/0020715220937752>
- Tatarkiewicz, W. (1976), *Analysis of Happiness*, The Hague, Netherlands: Martinus Nijhoff.
- Tavor, T., L. D. Gonen, M. Weber and U. Spiegel (2018), “The Effects of Income Levels and Income Inequalities o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9(7), 2115-2137. <https://doi.org/10.1007/s10902-017-9911-9>
- Tokuda, Y. and T. Inoguchi (2008), “Interpersonal Mistrust and Unhappiness among Japanese Peo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2), 349-360. <https://doi.org/10.1007/s11205-007-9235-y>
- Tokuda, Y., S. Fujii and T. Inoguchi (2010), “Individual and Country-Level Effects of Social Trust on Happiness: The Asia Barometer Surve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10), 2574-2593. <https://doi.org/10.1111/j.1559-1816.2010.00671.x>
- Torpe, L. and H. Lolle (2011), “Identifying Social Trust in Cross-Country Analysis: Do We Really Measure the Sam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3(3), 481-500. <https://doi.org/10.1007/s11205-010-9713-5>
- Veenhoven, R. (1984), *Conditions of Happiness*, Dordrecht, Holland: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Veenhoven, R. (1999), “The Four Qualities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1-39. <https://doi.org/10.1023/A:1010072010360>
- Veenhoven, R. (2008), “Healthy Happiness: Effects of Happiness on Physical Health and the Consequences for Preventive Health Ca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3), 449-469. <https://doi.org/10.1007/s10902-006-9042-1>
- Wei, X., S. Huang, M. Stodolska and Y. Yu, (2015), “Leisure Time, Leisure Activities, and Happiness in China: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7(5), 556-576. <https://doi.org/10.18666/JLR-2015-V47-I5-6120>
- Welch, M. R., D. Sikkink and M. T. Loveland (2007), “The Radius of Trust: Religion, Social Embeddedness and Trust in Strangers”, *Social Forces*, 86(1), 23-46. <https://doi.org/10.1353/sof.2007.0116>
- Welzel, C. and J. Delhey (2015), “Generalizing Trust: The Benign Force of Emancip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6(7), 875-896. <https://doi.org/10.1177/0022022115588366>
- World Values Survey (WVS), Available from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 Wu, Y. and J. Zhu (2016), “When Are People Unhappy? Corruption Experience,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Mainland Chin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3), 1125-1147. <https://doi.org/10.1007/s10902-015-9635-7>
- Yamaoka, K. (2008), “Social Capital and Health and Well-Being in East Asia: A Population-Based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66(4), 885-899.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7.10.024>
- Yamashita, T., A. R. Bardo, and D. Liu (2016), “Are East Asians Happy to Work More or Less? Associations Between Working Hours,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in China,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3), 264-274. <https://doi.org/10.1111/ajsp.12140>

Ye, D. Z., Y. K. Ng and Y. J. Lian (2015), "Culture and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3(2), 519-547. <https://doi.org/10.1007/s11205-014-0747-y>